

욕망의 정치/욕망의 종교와 학문함의 의미

윤상헌*

논문초록

이 소고는 인간 욕망의 근원과 양상을 다룬 르네 지라르와 욕망의 현상과 그 증상을 살핀 라캉의 논의와 관련지어 한국사회에 '모방 욕망'의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이면에 소위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욕망의 정치는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는 시뮬라시옹의 체제로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이미지의 질서체계를 분별하고 그 이상 숭배적 속성을 해체시켜야 하는 본질적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욕망의 종교로 전락하여 욕망의 정치의 짝패가 되어 서로가 욕망의 주체와 매개자(모델)로 작동하는 이중 매개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의 결합은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는 '모방 욕망'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며 실재의식과 주체의식의 상실로 나아가는 부조리한 상황을 결과한다.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 사이에서 기독교적으로 학문함의 의미를 모색하는 것은 다른 아닌 창조-타락-회복의 기독교세계관의 패러다임의 전제 하에 구체적인 세계상의 인식을 통해 회복과 변혁을 위한 접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성서적 내러티브에 의거한 인간 이해의 해석적 균형에 입각하여 타락의 실존과 함께 창조와 구속(회복)을 통한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향한 초석이 된다.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존엄이 무시되고 인간의 생명과 삶이 화폐의 가치로 환산되는 야만의 시대에 기독교적으로 학문함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기독교공동체인 기독교대학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직결된다고 믿는다.

본고는 그에 대한 예비적인 답변으로 기독교적으로 학문함의 내포적 의미를 성서의 구원 서사인 창조-타락-회복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세계관의 구축과 이 세계관의 구체적인 접점인 세계상의 확보에 바탕을 두고 기독교적으로 학문함의 외연을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을 포함하여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공시적 상황과 '식민지와 전쟁을 경유한 한반도의 근현대사'라는 통시적 정황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욕망의 정치에 포획된 욕망의 종교가 되어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에서만 소환되는 종교 소비재로 변질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전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주제어: (모방) 욕망, 욕망의 정치, 욕망의 종교, 기독교적으로 학문함, 실재의식, 주체의식, 기독교세계관, 세계상, 제자도

*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I. 들어가며

욕망이란 “무엇을 누리하고자 탐하는 마음”이나 “부족을 느껴 이를 채우려고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바라고 원함”이라는 욕구와 구별된 의미를 갖는다. 후자가 다소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전자는 부정적인 함의가 담겨있다. 욕망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일 수 없으나 타락 이후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조와 방향의 논지는 욕망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된다. 사도 요한이 언급한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요한일서 2장 16절, 새번역)은 인간의 욕망이 그릇된 방향성을 취한 것에 다름 아니다.

건강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란 그 구성원들의 삶의 필요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일부 구성원들의 과도한 욕망은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소명과 역할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2014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8.5명으로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두 배 이상이 많다. 작년 한 해 동안 14,427명이 목숨을 끊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도 10만명당 21명으로 OECD 가입국가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최근 6년간 가계부채 평균 증가율이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 사회의 병증이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로사회>, <위험사회>, <팔꿈치사회>, <단속사회>, <분노사회>, <잉여사회> 등 최근 출간된 책들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송파 세 모녀의 사건과 경비노동자의 분신, 국밥 값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독거노인의 사연은 생명이라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우리 한국 사회가 자본과 권력을 향한 과도한 욕망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르네 지라르는 인간 욕망의 근원과 양상을 다루는 그의 문학비평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욕망의 근원이 욕망의 주체인 사람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 발생하지 않으며 욕망의 매개자/중개자로 불리는 제3자에 의해 매개/중개된 욕망이다(René Girard, 2001: 23). 돈키호테의 욕망은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모방한 것이며 아마디스는 매개자/중개자로서 욕망의 모델이 된다. 지라르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비롯하여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의 이야기>, 스탕달의 <적과 흑>¹⁾ 등의 문학작품의 비평을 통해 인간의 모방 욕망을 분석한다. 그 속에서 그는 “작가들 스스로가 욕망의 자율성이라는 ‘낭만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소수의 위대한 작가들은 그 환상을 해체하고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는 욕망을 드러내므로 ‘소설적 진실’을 폭로한다”(김모세, 2008: 40)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모방 욕망이란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키며 타인의 속성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그가 점유하고 있는 우월한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욕망으로 왜곡되고 비진정한 속성을 지닌다. 상품 광고가 어느 특정한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인이나 배우처럼 아름다워지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그 상품에 대한 구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모방 욕망의 구체적 예가 될 것이다.

김모세는 우리 사회에서 목도되는 ‘명품족’, ‘신데렐라족’, ‘성형의 열풍’이라 불리는 현상의 본질은 다름 아닌 모방 욕망의 실현이며 사회집단의 정체성이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서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본다. 이발사의 대야를 맘브리노의 투구로 착각하는 돈키호테의 광기처럼 명품 구입에 목숨을 걸고 분수에 넘치는 호화파티를 일삼는 신데렐라족의 행태는 상류계층이 욕망의 매개자/중개자가 되어 그들과 같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현실을 체험하고 귀족이 되어 보고자하는 욕망, 즉 욕망의 모델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그 우월성을 모방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형이상학적 욕망이라는 것이다(김모세, 2008: 53-55).

자크 라캉은 정신분석과 언어학/기호학을 결합시켜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영역에 언어 구조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를 의미작용으로 설명한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견해를 따라 의미나 가치는 기표 간의 차이에서 유발한다고 본다. 교통 신호등의 세 가지 색깔은 그 자체의 내재적 의미를 갖지 않고 서로의 관계 차이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상징계는 끊임없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표와 이러한 차이를 통해 발생한 의미나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욕망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상징계에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킬 기표를 찾고 쫓는다. 라캉은 그 기표가 우리의

1) <보바리 부인>의 여주인공 엠마 보바리는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삼류소설과 잡지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을 모방하여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싶어 하며 <적과 흑>에 등장하는 레날은 발르노와의 경쟁관계에서 이기기 위해 주인공 쥘리앵을 가정교사로 발탁하는데 이 또한 레날과 발르노가 서로 경쟁적으로 욕망하는 것으로 본다. 르네 지라르, 앞의 책, 26-28 참조.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환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욕망과 욕구를 구분하여 욕구는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본능에 상응하며 욕망은 욕구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사회학자 이철은 명품 손가방이나 아파트 혹은 대형 교회 등이 디자인, 품질, 광고, 가격, 규모와 크기 등에서 다른 기표를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구축한다고 보았다(이철, 2014: 32-33). 여기에서 기표의 차이를 부여하는 사회나 공동체의 기준과 통념이 되는 사회적 에토스가 주요한 매개 방식이 될 것이다.

서운영은 인간의 욕망과 건축의 관계 지움을 성찰하는 글에서 ‘모방 욕망’의 또 다른 모티프로써 백화점의 등장을 말한다. 백화점은 중산층이나 하위 중산층이 상류층이나 상위 중산층의 소비 형태를 모방하는 욕구와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점들이 출입을 제한하는 ‘배제’의 전략을 사용한 것에 반해 백화점은 자유롭게 상점에 들어와 구경을 하며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흡인’이라는 전략을 사용한다(서운영, 2009: 56-57).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거 상류층의 특정 소비 형태를 따라하는 어느 정도의 모방 욕구가 충족된다. 하지만 더 이상 특정계층의 아비투스(habitus)를 통한 구별이 어려워진 상류층은 자신들의 과시적 소비 욕망을 투사하는 별도의 특정 문화 소비적 행태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백화점이라는 기표가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운영은 “인간이 매매할 수 있는 상품 중 가장 값비싼 것이면서 또한 실재가 없는 매우 모순적인 상품”(서운영, 2009: 117)으로서 아파트가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왔던 기표라고 본다. 그는 어느 특정 아파트의 이미지 광고 문안을 예로 들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욕망의 기표로 작동하는 지 보여주고 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로비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고 동창생들이 인사를 하며 재빠르게 서로의 옷과 구두, 핸드백을 훑어본다. 바로 그때 ‘미안, 조금 늦었지, 어서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나타나는 여성이 있다. 간단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그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손에 대충 말아 쥔 연주회 팸플릿과 함께 R아파트의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가 들려 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R아파트 광고로서... 음악회에 가는 행위가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팸플릿은 대충 손에 말아 쥐고 있고 그 ‘고급스럽고 지성적이며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받은’ 이미지 위에 R아파트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팸플릿 위에 아파트의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쥐고 등장한 것이다. (서운영, 2008: 121)

오랜만에 여고 동창생들이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여성이 승용차 뒷자리에 친구와 그녀의 아이들 태웠다. ‘대단하신편데요, 운차장님’ 차장으로 승진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커리어 우먼은 승자의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뒷자리의 동창생에게 묻는다, ‘집이 이 근처랬지.’ 바로 그때 친구의 아이가 반갑게 소리친다. 우리 집이다! 창밖으로 R아파트가 보이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은 뒷자리의 전업주부를 새삼 다시 바라본다, 네가 더 대단하다고. (서운영, 2008: 122)

저자는 이 광고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R아파트’라는 기표를 획득하게 되면 충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은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상관없이 상징계 내에서 욕망의 내용과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 아래 기업에 의한 시장을 넘어 기업을 위한 시장의 논리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체제에서는 거대 기업이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국가의 방향 설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국가 경영체제가 소수에 의한 사당적 시스템으로 변질되게 되면 정치 권력은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 확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자본 권력과 결탁하여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 개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는 ‘욕망의 정치’를 구사한다(김준형, 윤상현, 2013: 48-49).

II. 시뮬라시옹 체제로서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

욕망의 정치는 물질적 번영과 경제적 안정을 약속하는 기표를 제시하고 환상을 조장하고 부추긴다. 문제는 이 지시 관계가 근본적으로 환상이라는 것이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실재가 실재가 아닌 파생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 보고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물을 시뮬라크르(simulacra)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물이 기호로 대체되고 현실의 복사본이나 이미지인 시뮬라크르가 실재를 지배하고 대체하는 곳이다. 이러한 시뮬라시옹의 질서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바로 정보와 대중매체인데 이러한 매체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현실의 이미지들이 실재를 지배하고 도덕적 당위를 대체하는 시뮬라시옹의 질서를 끊임없이 사회성원들

에게 강요하고 있다(Jean Baudrillard, 2001: 9).

종교는 마땅히 이 시물라시옹의 체제를 분별하고 상대화시키므로 그 우상 숭배적 속성을 해체하고 무력화시키는 소명을 갖는다. 사물이 기호로 대체되고 무게와 핵타르 그리고 미터로 환원될 수 없는 나무와 산과 강의 이야기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고 이미지가 실재를 공공연히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욕망의 정치를 향해 경종을 울려야 하는 종교가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선지자적 비판을 등한시 하고 또 다른 환상을 부추기고 생산하는 욕망의 매개/중개 역할을 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은 그의 <오픈 시크릿>에서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우상 숭배적 성격을 간파하고 이는 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한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되었다. 지금은 이를 필적할 만한 가시적인 세력이 없는 형편이다. 그 가치 없는 발걸음을 견제할만한 어떤 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가 인간 사회의 응집성과 환경 보존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영혼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만 그것을 다루고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 문제가 다가오는 시대에 그들이 담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선교 과제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다(Leslie Newbigin, 2012: 172).

한국 개신교의 7, 80년대의 폭발적인 성장 곡선은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²⁾ 조성돈은 개신교의 격감을 서구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종교가 자리를 잃고 초월성을 합리성에 내어주었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더 이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종교 이후기’라는 단순한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1995-2005년 사이 종교 인구는 50.7%에서 53.1%로 증가하였고 절대인구로 237만 명이 증가하였다(조성돈, 2004).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 현재 정체의 원인을 한국 개신교의 사회정치적 보수주의 내지 근본주의의 성향, 적응주의의 노선을

2) 종교사회학자 정재영은 그의 논문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이라는 논문에서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빌어 불교는 3.9% 증가했고 천주교는 74.4% 증가한 반면에 기독교는 1.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해 연도 조사가 전수조사로서 어떤 조사보다도 신뢰도가 높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성돈, 정재영 엮음,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73-95 참조.

취하고 한국의 근대주의적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 친미주의, 반공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는 분석은 현재 개신교의 신앙적 행태가 욕망의 정치의 매개자/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지와 맥을 같이 한다.³⁾ 정재영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정치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는 권고 사항은, 선거가 있기 전 약 3개월 전부터 지역의 대형교회에 출석하라는 것이다.”(정재영, 2009: 9)

욕망의 정치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개발’의 이름으로 ‘변혁’의 수고를 대신하며 ‘변화’의 의미를 특정된 정치 행위자의 욕망이 중심이 된 자의적 ‘재구성’으로 치환시켜 버린다. 이때 욕망의 매개/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초월적 가치의 부여’라는 본래적 소명에서 이탈한 종교로서 사유화(privatization)와 영화(spiritualization)의 여과과정을 통해 ‘사회정치학적 휘발성’을 상실한 욕망의 종교인 것이다.

욕망의 종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항 대립적 관점에서 보도록 강요하여 각각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성서적 기표에 자의적 가치(의의)를 부여한다. 사실상 성서적 기표를 오용하므로 그 기표가 가리키는 초월적 가치라는 기의를 왜곡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기표와 기의의 전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적절한 예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해석적 이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본문은 5장에서 시작되어 7장에서 끝나는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설교의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자신들을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교훈이다. 그리할 때 들풀과 새들조차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이다(Gaebelein, 1984: 181-182). 성서적 제자도에 입각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초월적 가치를 목적으로 삼지만, 욕망의 종교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을 초

3) 광창대, “최근 한국 개신교의 교세 감소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논문집, 2003). 노치준,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한울, 1998). 류대영, “1980년대 이후 보수교회 사회참여의 신학적 기반”,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제 18호.

래한다.

이철은 한국교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사와 코드를 살피는 글에서 한국교회의 설교에서 죄, 심판, 속죄, 구원, 순종, 비움과 같은 구원서사보다 상대적으로 성공서사가 강세를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서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이철, 2014: 58-59). 그 과정에서 신앙의 초월적 시각은 상실되어 신앙은 현세주의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하부구조로 변질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제의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주를 벗어난 ‘보이는’ 일상적인 제반 영역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의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전자에 속하는 것을 도외시하게 하거나 큰 의미를 두지 못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욕망의 정치가 낡은 부조리한 양상들의 전경(全景)을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맹(盲)이 되게 한다. 실제적인 정치 문화적이며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소극을 연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엄연히 노정되어 있는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실재의 모두요 전부라고 보는 자연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실재가 존재한다는 성서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면, 형이상학적 객관성을 지닌 실재와 사실들은 분명히 우리의 인식론적 객관성이나 주관성을 넘어 존재하는 것들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욕망의 종교는 그러한 객관적인 실재와 사실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눈을 감고 역사문화 공간을 떠나 개인의 사적 세계로 은둔하거나 맹목적인 ‘좌충우돌’을 감행하여 그 폐해를 고스란히 타인과 공동체에 떠넘기고 만다. 흥미로운 사실은 욕망의 종교는 역으로 욕망의 정치를 매개로 하여 그 행태를 모방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조차 경쟁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상이 재현되고 있는 현상, 출세와 재력, 권력의 역동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추앙되고 숭상되고 있는 모습, 세상을 섬기는 가장 고결한 행위 가운데 속하는 선교적 행위에서 목도되는 호전성과 제국주의적 태도 등이 모방 욕망의 구체적인 예가 된다.⁴⁾ 현세적 축복과 성공은 구원

4) 대표적인 것은 한국 기독교의 사유화일 것이다. 이철 교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습 관련문제들이 원초적으로 사유화된 한국교회의 외상적 증상이라고 진단한다. 그 증상의 근저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욕망 뒤에는 자신의 뜻대로 물질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나르시시적인 자아가 숨어있고 보았다. (이철, 『한국기독교의 사유화와 공공성』, 2014)

<http://www.theoslogos.com/news/articlePrint.html?idxno=82> 참조.

의 필요 충분한 징표(token)가 되고 심지어는 구원의 전형(prototype)으로 간주된다. 축복과 성공이 없는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지라르는 모방 욕망이 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욕망의 주체와 욕망의 매개자/중개자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상대방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필연적으로 서로 자신의 욕망의 우선권을 주장하므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심화되어 두 주체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양자의 차이는 줄어들고, 서로 닮은 한 쌍의 원수들만 남게 된다고 보았다(김모세, 2008: 108-109). 지라르의 분석에 의하면 모방욕망에 빠진 인물들은 매개자에게 부여된 특권과 우월성으로 인해 욕망의 대상에 환상적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외부 세계에서 폐쇄적인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욕망의 주체들은 타자의 시선이 내재화되어 자기경멸의 시각을 갖는다고 보았다(김모세, 2008: 93).

J. R. R. 톨킨은 그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의 화신인 사우론의 치명적 결함을 통해 지라르의 통찰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우론의 치명적 결함은 만사를 오직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여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에게는 다만 절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만이 존재한다. 사우론의 절대 반지는 인간 존재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 - 소유와 지배의 욕망을 상징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을 자극하여 끝없는 불만족 속에 처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존재를 파괴하는 악을 가리킨다. 보르미르가 절대 반지의 위력을 악을 대항한 무기로 삼자고 제안을 하지만 지혜로운 요정왕 엘론드는 이렇게 경고한다. “[반지는] 치명적인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지에 대한 욕망,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현자들 중 한 명이 반지를 가지고 또 그의 지혜를 이용하여 모르도르의 군주를 무찌를 수 있다면 그는 곧 사우론의 권좌에 스스로 오를 것이며, 따라서 또 하나의 암흑의 군주가 탄생하는 거지요”(J. R. R. Tolkien, 2009: 115). 절대 반지에 대한 욕망은 매개자/중개자인 사우론에 의해 강화되며 그 악은 중국에 가서 욕망의 주체인 인간을 파멸시키고 만다는 점을 톨킨은 엘론드를 통해 밝힌다 (Isabelle Smadja, 2003).

III. 모방욕망의 형이상학: 실제 의식의 상실과 주체 의식의 함몰

모방욕망의 형이상학에서 몰각되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것은 실제 의식의 상실과 주체 의식의 함몰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육적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거듭나기 전에는 보이는 물질세계만을 인식하던 존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세계와 이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성서의 은유를 빌리면, 신앙은 ‘눈을 뜨는 것으로의 회복’이다. 이 실제 의식의 회복은 구체적인 역사문화 공간에서 역사의식과 상황 인식으로 표출되어진다.⁵⁾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이순신이 명량 울돌목에서 적 삼백 척을 ‘삼백 개의 한 척’으로 궤멸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바다의 사실’에 입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기력한 임금의 두려운 의심, “헛것을 정밀하게 짜 맞추어 총과 의의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위관들의 가없는 언어가 사지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권력 욕망에 집중했을 뿐 그 시대의 역사문화 공간에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김훈, 2001).

타자의 시선이 내재화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체적인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모방욕망은 존재론적 차원과 구체적인 역사문화 공간적 차원에서 자기비하와 자기경멸이 수반되고 오리엔탈리즘적 의식에 함몰되고 만다.⁶⁾ 흔히 서양이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은 유럽 서양인의 경험적 인식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인데 모방욕망의 추종자는 모방의 매개자/중개자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레비나스가 말한 바, ‘자기성’을 지닌 향유의 주체성과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환대로서의 주체성’ 모두를 놓치게 된다(강영안, 2005: 40-41).

5) 이만열 교수의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과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 (서울: 지식산업사, 2010)은 구체적인 사례와 본을 제시한다.

6)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자학사관과 식민사관의 관점이 이른바 통속적인 기독교적 역사관과 결합되어 설교나 간증에서 회자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 그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정치가 욕망의 정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지자적 자세로 계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보다는 오히려 욕망의 종교로서 실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의 근거는 무엇인가? 목회자들과 교단 지도층의 분열적인 사회정치적 발언 자체도 그 문제점이 심각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버젓이 사목적(司牧的) 권위의 이름으로 용인되고 통용되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에토스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분단체제 아래 적대적인 군사적 대치라는 한반도의 정치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권력에 의하여 조장된 안보위기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그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침묵하므로 욕망의 정치 체제를 재가한다.

2013년 여름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병영체험이라는 극기 훈련이 상업주의로 인한 허술한 캠프 운영과 인명경시풍조가 결합된 인재였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군사문화와 맞물린 비극이었다. 군사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문화적 행동방식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는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사고방식과 언어는 매우 군사 문화적이며 전쟁의 은유가 가득하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의 관계와 교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심하게 계층화되고 위계화되어 있다. 장로와 집사와 성도의 직분은 직무가 아니라 직급의 차이로 이해되고 있다. ‘총동원주일’, ‘영적전쟁’, ‘기도용사’, ‘전도폭발’, ‘고지정복’, ‘선교전선’ 등 우리의 언어는 평화와 화해가 아닌 전쟁과 갈등의 프레임으로 나타난다. ‘국방’과 ‘안보’는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요소지만 국가와 사회 전체가 ‘병영’이 되고 구성원 전체가 ‘군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나아가 군사문화를 통치와 관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지닌 교회가 용인할 수 있는 행태는 결코 아니다(윤상헌, 2013: 74-75).

존 스토틀트는 그의 에베소서 연구서인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옛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을 통해 하신 일과 지금도 그분의 성령을 통해 하고 계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John Stott, 1988: 24).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은 개인 차원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것이며(엡 2:1-22) 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세우시는 것이다.⁷⁾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인 성도가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명령하고 있다.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교회의 순종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모형을 따라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종과 주인 관계를 새롭게 할 의무가 주어지고 나아가 새로운 사회에 적대적인 정사와 권세에 저항하는 것 또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인간 존재와 경험의 부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연유한 것이며 이 관계의 회복은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중요한 초석이다. 그 시작 지점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내러티브가 자리하고 있다는 고백을 기초로 삼는 것. 그리고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에 관한 실재와 사실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료와 정확한 논리를 기반한 세계에 대한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해석을 지닌 인식과 실천에 복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욕망의 정치의 기만성과 폭력성으로부터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의 위력 앞에서 환관 역할을 해대는 욕망의 종교의 속물적 세속성으로부터 실재적 (realistic)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담보하기 위한 기독교적 학문함의 의미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기독교적 학문함의 대의는, 라캉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상 가로지르기”와 “진실 말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환상 가로지르기”란 욕망의 매개가 되는 타인의 욕망을 내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그 욕망의 성취가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부추기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른바 상징계의 기표를 쫓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 말하기”란 미셸 푸코가 진정성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파레지아’(parresia)와 연관 지어 볼 수가 있다. 파레지아는 전부(all)라는 뜻의 ‘파르’와 말의 의미를 지닌 ‘레지아’가 합쳐진 것으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기’라는 뜻을 갖는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 정신을 담고 있고 그리스-로마 시대에 시민적 삶의 원칙이기도 했던 개념인 파레지아를 푸코 자신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와 연관 짓는다. 무엇보다 그가 방점을 둔 것은 이 개념이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약자들을 대신하여 말하는 행위라는 점이었다.⁸⁾

7)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다. “제3의 종족”은 신원출판사에서 1973년에 번역 출간한 그의 『The Dust of Death』의 한국어판 제목이기도 하다.

8) 정치학자 김준형은 진정성에 관한 글에서 푸코의 용례를 따라 파레지아가 약한 자가 비굴함에 짓눌

이 기독교적 학문함의 대의는 학문 기관이자 공동체인 대학의 소명과 직결된다. 마이클 베일리는 푸코의 파레지아의 개념을 원용하며 대학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춧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자 자신이 비판적 사고를 시민의 의무와 결합시키는 것은 마땅한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다(Michael Bailey, 2012: 125).

대학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 소수의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지식 축적과 학문 방법, 분석 도구들을 평신도 지식인들이 전유하게 된 역사적 과정 속에 형성되었다. 대학이라는 존재가 결국 여전히 안정된 유산계급 안에서만 존재한 엘리트적 기관이라는 사실과 연결되는 숙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은 시장화와 도구화에 맞서 학문의 고유 영역을 지키고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본질적 성격과 개념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 하에 저술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신념에 대한 헌신과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Michael Bailey, 2012: 133).

디지털 경제, “창조와 융합”의 이름으로, “실무형 인재” 등과 같은 표제로 인문학이나 교양 과목은 사치이며 일종의 도락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들러리나 있으면 좋은 ‘부록’ 정도로 간주하는 시대에 널 포크너는 교육이 부분적으로 특정한 생산 업무를 수행할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육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적 논쟁에 참여하며 사회적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Michael Bailey, 2012: 51).

학교 교육이 역사적 상황, 문화적 맥락에서 떠날 수 없고 그 시대의 실용적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지만 대학의 본질적 소명은 통치 계급을 위한 인재 양성과 기업과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을 넘어 고전을 통한 가치의 전수와 그 가치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통해 그것들의 현대적 의미를 해석하고 추구하는데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대학은 성서와 자연과 역사 문화적 시공간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전수하고 그 가치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통해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현재화하는 소명을 지닌다. 조지 마스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리지 않고 할 말을 한다는 의미이지 강자의 과시욕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김준형, 윤상헌, 『언어의 배반』, (서울: 뜨인돌 2013), 256 참조.

주제를 신학적 영역으로 축소시키거나 환원시키지 말고 인간 본성과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을 의식적으로 주목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정신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⁹⁾ 진정한 의미의 초월적 가치란 인간적 가치를 하위적이며 저열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진정한 인간됨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밝힌다.¹⁰⁾ 그것은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재성에 함몰되어 자칫 빠져들 수도 있는 맹목성, 근시성이라는 이상 숭배적 요인과 그 한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아더 홈즈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란 단순히 어떤 입장이나 일의 성취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학문이 신앙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인간의 모든 예술과 과학 즉 학문의 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았다(Arthur Holmes, 1989: 57).

우리 가운데 (우리는 교회공동체, 학교공동체, 가정, 우리 개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성숙이원론과 혼합주의의 뿌리를 캐내어야 한다. 둘은 서로를 부정적으로 강화시킨다. 성숙이원론은 신앙생활이 예배당 중심의 종교 활동에 국한되고 비종교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죄된 것으로 인식하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순종으로서 제자도의 적용과 실천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왜곡시킨다(송인규, 2001: 44). 혼합주의는 성숙이원론의 오류와 폐해를 피상적으로 지적하며 성결과 구별된 삶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과 원칙을 배제하고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여 문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삶을 견지하면서 사는 경우이다. 성숙이원론이 세상에 있는 것(in the world) 자체를 세상에 속한 것(of the world)이라고 혼동하며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라면, 혼합주의는 내면적 정신세계가 이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속한

9) 마스텐은 여러 이념들과 주장이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나 통찰력을 대변하지만 인간 경험의 특정한 한 차원을 절대화시키거나 환원시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화하는 경향 역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지 마스텐,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학문세계』 (서울: IVP, 2000), 조호연 옮김, 148-149 참조.

10) Jens Zimmermann은 그의 <Incarnational Humanism: A Philosophy of Culture for the Church in the World> (IVP, 2012)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의 사람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우리가 성육신에 내재한 인간의 초월적 기원과 근거를 강조하면 할수록 인간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9 참조).

삶을 사는 즉,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송인규, 2001: 46-56).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교회와 세계에 대한 비관주의, 사회적 무관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공격적 심성과 적대의식, 지적인 열등의식, 고립주의 등은 개인적인 경험과 온전한 복음의 빛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설교와 상담의 결과라고 진단한다(Alister McGrath, 1997). 그것은 미성숙한 신학의 문제이다.

이 미성숙한 신학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속한 국가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특별히 해당 국가와 사회에서 육망의 정치경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선지자적 외침이 요청되는 시기에 구체적인 역사와 문화 공간에서 미성숙한 신학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는 이른 바 “종교적인 영역”을 고수하고 일상적 삶의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들을 외면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공시적 상황이나 ‘식민지와 전쟁을 경유한 한반도의 근현대사’라는 통시적 정황¹¹⁾과는 상관성이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에서만 소환되는 종교 소비재로 전락하고 신앙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만다.¹²⁾

단적인 예가 지난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경우다. 박민규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규정한 세월호 참사는 국가 체제의 부패와 무능의 고리가 맞물린 사건이다.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의미하지만, ‘사건’은 개인이나 단체의 의도 하에 발생하는 뜻밖의 일을 의미한다(박민규, 2014: 433). 이 참사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도록 법적 판결과 제도적이며 구조적 접근을 취해야 하는 정의적인(justice) 차원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붙잡아 주는 공의적인(righteousness) 차원에서 현 정부의 태도는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개신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사의 원인과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청원

11) 김종엽은 『사회를 말하는 사회와 분단체제론』에서 “00사회”(허기사회, 분노사회, 과로사회, 잉여사회, 피로사회, 단속사회 등)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출간된 저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병증과 원인을 그의 분단체제론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김종엽, <창작과 비평> 가을 호 (서울: 창비, 2014) 참조.

12) 조성돈은 현재 한국교회에 공교회로 불릴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말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기총이나 한교협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다고 본다. 한국교회 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치리가 없고,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조성돈, <한국기독교의 사유화와 공공성>,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공동개최 심포지엄, 2012년 7월 6일, 발표내용에서.

과 조사 과정에서 비정치성을 앞세우며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일관했으며 설교는 대부분 개인적 차원의 회개와 자성을 촉구하는 도덕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나봇의 포도원 일화는 정치와 경제와 무관한 듯 행동하는 종교의 민낯을 보여준다.¹³⁾ 아합 왕은 자신의 정원으로 쓰기 위해 인접한 나봇의 포도원을 매매할 것을 요구한다.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말로 아합왕의 토지거래를 거절한다. 왕후 이세벨은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한다. 이때 이세벨의 욕망의 정치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그녀가 사주한 두 명의 불량배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왕의 밀서의 지시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왕상 21:9-10). 그들의 행위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율법에 대해 흠결이 없었다. 2명의 증인이 있었으며 재판을 거쳤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마을 밖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 하지만 나봇이 죽은 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다. 엘리야는 나봇의 무죄한 죽음에 관여하지 않은 듯 보이는 아합이 살인과 도둑질을 범한 자임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봇의 죽음에 가담하는 “장로들과 귀인들”의 종교성이 물씬 배어있는 패악과 나봇의 무죄한 죽음을 단순한 정치경제적 해프닝을 보시지 않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비정치성을 앞세우며 불간섭을 말하는 종교는 그 자체가 이미 매우 정치적이다. 야훼의 종교는 정치와 경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치와 경제가 욕망의 화신이 되어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갈 때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미성숙한 신학은 이원론과 혼합주의의 거센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욕망의 정치를 제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역사문화적 공간에서 우리의 답변이 빈하며 영적 빈곤과 결핍을 경험하는 주된 원인은 성숙한 신학에 바탕한 세계관적 조망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비롯된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인구 분포상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책임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 지성인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⁴⁾

13)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의 구약학자 김근주 박사가 2014. 10. 8. 한동대학교에서 행한 특강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와 정의와의 관계> (한동희년함께와 한동학문과신앙연구소 공동 주최)에서 나눈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성서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이해는 이중적이다. 성서의 창조-타락-회복(구속)의 내러티브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성서가 인간의 죄성을 가감 없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으로서의 가치와 그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존귀함이 전제되어 있다. 타락의 실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내재한 신성은 인간 스스로를 신성화(defication)하는 이상 숭배적 오류를 낳을 수 있고, 타락의 실재를 인식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임을 망각하거나 간과하게 되면, 타락의 실존 가운데 처한 인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어려워진다. 인간 존재와 경험에 대한 부당한 과대평가와 부당한 과소평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서의 창조-타락-회복의 내러티브에 바탕한 기독교세계관이 갖는 해석적 균형은 의미롭다.

성서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세계관(Weltanschauung)의 확보가 이원론과 혼합주의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인 것은 틀림없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세계상(Weltbild)에 대한 확보가 미비할 때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선교 2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보수진영에서 시작된 문화와 사회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참여 운동과 신앙과 삶의 일치,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 운동의 결과로 다양한 층위의 긍정적인 전개와 발전이 있었지만 지적되고 있는 바 “상황”에 대한 참여는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는 유효하다(류대영, 2003: 45-46).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의 층위는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세계관적 조망의 틀이 확보되었을지라도 실제 세계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결핍 내지 부족에서 연유되는 객관적인 세계상의 충분한 이해의 부재와 점점 확보의 실패가 그 이유에 포함된다. 기독교세계관이 구체적인 운동력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그 틀(frame)이 바라보고 소통하며 개입하는 창이나 문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구별 짓고 예단하는 굴레가 되어 오히려 역사 문화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공간과 유리된 게토(ghetto)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게토의식은 마치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을 손에 쥐고 집 안에 머무는 것과 같다.

14) 한국교회미래를준비하는모임(한미준)에서 실시한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종교 인구와 비종교인 인구가 각각 55.1%, 44.9%로 나타났고 이중 개신교 22.5%, 천주교 10.1%, 불교 22.1%로 나타났다. 인터넷 아이굿뉴스, 통계로 보는 한국기독교, 2013년 7월 12일자 기사 참조.

세계관의 역동성과 유효성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관은 이론적 축소물일 뿐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적 알리바이” 정도로 전락되고 결과적으로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축소되고 왜곡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 본래 지도는 길을 나선 이에게 유용한 법이다. ‘세계’는 지금 여기를 포함한 역사문화공간과 영역을 말하며 세계상의 확보란 연구와 참여를 통한 구체적인 개입을 전제한다.

IV.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향한 접점으로서 기독교적으로 학문함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존엄이 무시되고 인간의 생명과 삶이 화폐의 가치로 환산되는 시대에 기독교적으로 학문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고 방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내다보고 성서적 내러티브의 이해와 해석에 근거한 실재적인(realistic) 삶과 구체적인 살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세계관적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고 본다면, 이 통합적 삶과 사역이 진정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인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정서와 열정의 파토스에 기초한 ‘의식’이 광범위한 자료와 정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종합을 거친 ‘인식’에 의해 검토되지 않으면 그러한 의식은 혼돈과 공허 속에 머물고 만다. 로고스(실재에 관한 사실과 진리)에 충분히 근거하지 않은 파토스(열정과 공감)는 에토스(윤리와 구체적인 삶의 양상)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가 기독교 전래 초기의 역동성과 사회변혁에 대한 개혁적 동력을 잃은 것은 성서의 구원 서사인 창조-타락-회복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세계관의 확보가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보다 큰 문제로서 이 세계관의 접점인 세계상의 확보가 충분치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영안은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을 다룬 그의 논고에서 학문 공동체의 규칙 가운데 ‘증거의 규칙’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 우리의 주관적인 의식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과 물질세계를 인정하고 사실 확인, 현장 실사, 경험과 관찰 등 경험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강영안, 2013: 27). 진영 논리나 이데올로기 혹은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사물과 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증거 요구나 사실 확증을 중시하는 것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을 수행하는 학자에게 유효한 태도임에 틀림없다.

김회권은 에버하르트 베트게가 쓴 디트리히 본회퍼 전기에 대한 그의 서평에서 본회퍼가 히틀러의 나치정권의 악마적 통치에 저항했던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본회퍼 자신이 자유와 존엄을 가르친 독일 중산층 가정에서 양육된 사실과 그의 자유인적 기상 그리고 인간 문명에 대한 고귀한 기대 등이 협력하여 그로 하여금 저항가의 길을 가게 했다고 평가한다(김회권, <복음과상황> 2014년 10월호). 본회퍼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섬기는 목적을 지닌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보았다. 그는 제자도라는 숭고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세계관)을 히틀러의 제3제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세계상)에서 실천하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

이유나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본 문익환의 기독교신앙과 사회참여라는 논고에서 구약 학자이자 목회자이며 시인이던 문익환(1918-1994)이 대학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는 신학교수와 성서공동번역에 참여한 학자의 자리에서 197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를 살핀다. 문익환은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이유나, 2014: 239). 평범한 기독교 신학자였던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 직접적인 계기에는 전태일의 분신,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인한 8명의 사형집행과 서울농대생 김상진의 할복자살 그리고 장준하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었다(이유나, 2014: 249-250). 그의 기독교신앙과 신학사상이 배경과 바탕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의 신앙과 신학에 근거한 의식이 운동력과 역동성을 갖게 된 것은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 문익환은 일부의 평가와 달리 세 번의 투옥 생활을 통해 매번 말씀을 붙잡고 본문의 말씀과 일체감을 경험하는 영성적 체험을 한다. 그가 북한방문 때문에 세 번째 영어의 몸이 된 후 어머니 김신묵 권사의 상을 당했을 때의 일화를 시인 정희성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정희성, 2007). 시인은 초월적(transcendental) 기독교영성이 삶의 구체적인 내재적(immanent) 상황 속에서 일견(一見)되는 장면을 “평화”라는 낱말로 담고 있다.

평화

아흔여섯 살 김신목 권사는 숨을 거두면서
내 죽으면 박수치며 보내달라고 했다
칠순이 넘은 아들 문 목사가
잠시 쇠고랑을 풀고 나와 박수로 어머니를 보내고
웃으며 감옥으로 돌아갔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럴 말 못할 평화가 있구나

V. 맺으며

본고는 인간 욕망의 근원과 양상을 다룬 르네 지라르와 욕망의 현상과 그 증상을 살핀 라캉의 논의와 관련지어 한국 사회에 ‘모방 욕망’의 현상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이면에 욕망의 정치와 욕망의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양자 사이에서 학문함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독교적으로 학문함의 내포적 의미는 성서의 구원 서사인 창조-타락-회복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세계관의 구축과 이 세계관의 실질적인 점진인 세계상의 확보에 있으며 기독교적으로 학문함의 외연을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을 포함하여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공시적 상황과 ‘식민지와 전쟁을 경유한 한반도의 근현대사’라는 통시적 정황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학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욕망의 정치에 포획되고 욕망의 종교에 포섭되는 욕망의 학문으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통하여 마귀에 의해 조장된 왜곡과 억압의 체제와 상황을 분별하고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학자를 포함하여]이 모든 곳[대학을 포함하여]에서 모든 것[학문의 영역을 포함하여]에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소명을 학문 영역에서도 준행함이 마땅하다(Os Guinness, 2006).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2013). “두 공동체 소속 문제로 본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 『신앙과 학문』 제18권 제3호.
- 곽창대 (2003). “최근 한국 개신교의 교세 감소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웨스트민스트신학대학원 논문집.
- 김모세 (2008).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서울: 살림.
- 김종엽 (2014). “사회를 말하는 사회와 분단체제론.” <창작과 비평> 가을 호. 서울: 창비.
- 김준형, 윤상헌 (2013). 『언어의 배반』. 서울: 뜨인돌.
- 김희권 (2014). <서평> 김희권, “가장 입체적이고 방대한 ‘본회퍼 생애 사상 사진.’” <복음과상황> 2014년 10월호.
- 김훈 (2001). 『칼의 노래』. 서울: 생각의 나무.
- 노치준 (1998).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한울.
- 류대영 (2003). “1980년대 이후 보수교회 사회참여의 신학적 기반.”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8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박민규 (2014). “눈먼 자들의 국가.” 계간 <문학동네> 가을 호. 서울: 문학동네.
- 서운영 (2009).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서울: 궁리.
- 송인규 (2001). 『평신도 신학 1, 2』. 서울: 홍성사.
- 윤상헌 (2013). “지배와 정복의 언어를 내려놓자.” 크리스챤너티 투데이 한국어판 2013년 9월호.
- 이만열 (2007).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 (2010).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 서울: 지식산업사.
- 이유나 (2014). “문익환의 기독교 신앙과 사회참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0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철 (2014). “한국기독교의 사유화와 공공성.”
<http://www.theosnlogos.com/news/articlePrint.html?idxn=82>
- _____ (2014). 『욕망과 환상: 한국교회와 사회에 관한 문화사회학적 탐구』. 서울: 시대의 창.
- 정희성 (2007).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서울: 창비.
- 조성돈 (2004).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토라.
- _____ (2012). “한국기독교의 사유화와 공공성.”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선교회훈련원,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공동개최 심포지엄 발표.
- 조성돈, 정재영 엮음 (2007).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Bailey, M. and Freedman, D. (2011). *The Assault on Universities: A Manifesto for Resistance*. 민영진 역 (2012). 『대학에 저항하라: 시장이 되어버린 대학, 상품이 되어버린 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 서울: 시드페이퍼.
- Baudrillard, Jean (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2001). 『시뮬라시옹

- 』. 서울: 민음사.
- Gaebelein, F. E. (Ed.) (1984).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 Girard, René (1961).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김치수, 송의경 역 (2001).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 Guinness, Os (1998).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홍병룡 역 (2006). 『소명』. 서울: IVP.
- _____ (1973). *Dust of Death: A Critique of the Establishment and the Counter and the Proposal for a Third Way*. 『제3의 종족』. 서울: 신원출판사.
- Holmes, Arthur F.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박진경 역 (1989). 『기독교대학의 이념』. 대구: CUP.
-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조호연 역 (2000).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학문세계』. 서울: IVP.
- McGrath, Alister (1995). *Evangelicalism & the Future of Christianity*. 신상길 역 (1997).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 기독교문사.
- Newbiggin, Leslie (1995). *The Open Society: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홍병룡 역 (2012). 『오픈시크릿』. 서울: 복있는 사람.
- Smadja, Isabelle (2002). *Le Seigneur des Anneaux ou la Tentation du mal*. 김현아 역 (2003). 『반지의 제왕, 혹은 악의 유혹』.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Stott, John R. W. (1980). *God's New Society: The Message of Ephesians (Bible Speaks Today)*. 박상훈 역 (1988).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서울: 아가페출판사.
- Tolkien, J. R. R. (1954). *The Lord of Rings: The Fellowship of the Ring*. 김번외 역 (2010).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 개정판.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Zimmermann, Jens (2012). *Incarnational Humanism: A Philosophy of Culture for the Church in the Worl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ABSTRACT

Politics/Religions of Desires &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Sang-Hun Yoon (Handong Global University)

Having noticed the widespread and deeply rooted phenomena of ‘imitation desires’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under the surface of which the so-called ‘politics of desire’ and ‘religions of desire’ lie,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inquiries of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in a Christian perspective in connection with René Girard’s proposal & Jacques Lacan’s theory on the causes and aspects of human desires. While politics of desire innately is a system of “simulation” in Jean Baudrillard’s sense, in which realities are replaced with images, aiming at the gratification of materialistic and worldly desires, Christian faith has an essential calling for discerning the ordered system of images and de-constructing its idolatrous characters. Once being deviated from the position of the calling, Christianity might have fallen into a religion of desire, befriended with politics of desire. Politics of desire and religions of desire have become the subjects and mediators of desire so reciprocally that through the process of double mediation imitation desires have been reinforced and reproduced in our society. The metaphysics of politics of desire and religion of desire leads into situations with absurdity, which dictates the loss of the awareness of realities and a sense of self-sovereignty.

In this vein, searching for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between politics of desire and religion of desire corresponds to taking steps toward restoring the Christian worldview paradigm of Creation-Fall-Redemption as well as securing contact points through recognizing concrete and specific aspects of the world (=Weltbild). Understanding human beings and their conditions & experiences based biblical narratives of Creation-Fall-Redemptive restoration gives rise to understanding the nobility and dignity of human existence, which in

turn results in laying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human freedom and dignity based on the incarnational humanism compatible with the biblical doctrines.

Key words: (imitation) desire, politics of desire, religions of desire, Christian learning, Christian Worldview, Weltbild